

기증본의 매력과 감회

고서점에 둘러 이 책 저 책 뒤지며 만나게 되는 즐거움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수택본(手澤本)의 발견이다. 2, 30년 정도의 세월밖에 지나지 않은 흔한 활자본일 망정 그것에 원 소유주나 먼저 주인의 흔적이 묻어 있는 책이라면 희귀본이나 고가본 못지 않은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책 자체의 문헌적 가치보다는 그 책을 읽었거나 소지했던 사람들의,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호사가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수택이 남아 있는 책의 대표격이라 할 기증본의 경우, 그것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 만한 유명인사라거나, 대개는 속표지 어디쯤에 그럴 듯한 현사가 써여 있게 마련이어서 눈길을 끈다. 물론 당사자들, 특히 기증한 쪽의 입장에서 정성을 담아 보낸 책이 고서점에서 굴러다니다면 불쾌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아예 기증본만을 집중적으로 모으는 수서자도 있다고 하니 기증본의 매력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닌 듯싶다. 한태석씨는 그의《서지총화(書誌叢話)》(1978, 이우출판사)에서 기증본을 모으는 매력과 감회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술화한다.

고서를 사 모오다 보니 기증본이 가끔 손에 들어온다. 같은 책이라도 저자의 육필로 된 서명이 담긴 고서에서는 신간에서와는 달리 생동감마저 느낄 수 있다.(…중략…) 그 책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평가나 애착의 도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한갓 짐작에 그치곤 하면서도 주고받은 이 사이의 정(情誼) 같은 것을 상상해보는 즐거움도 있어 이야말로 고서 중에서도 같은 값이면 기증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소이연이기도 하다.

기증본의 진짜 매력은 자신이 직접 기증의 수혜자가 되는 데 있다. 그러나 기증본에서 느꼈던 저자의 후의도 순진한 옛말이 돼버린 성싶다. 책이 워낙 흔해진 세상이니 자기과시와 홍보의 차원에서 책을 ‘뿌리는’ 일들이 점점 빈번해지고, 따라서 기증본을 받는 감흥도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바야흐로 기증본 공해시대가 온 것일까.

이래저래 기증본은 책의 내용보다도 저마다 다른 사연을 곁들여 지니게 마련이다. 그래서 남들이 주고받은 경우의 것을 수집하는 입장에서 적어 흥미있는 일하면서 또 한편으론 그 책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해서 고서점까지 흘러나왔을까 하고 추리해보는 것인데, 그러다가 어떤 경우였던 일단은 받은 이의 소홀 탓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고 보면, 남의 일하면서도 그리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다. 그것도 받은 이가 고인이면 그 유가족의 처리 여하로 고서점에 흘러나왔을 법하지만, 아직도 생존하는데다 더구나 저명인사에 속하는 분의 것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기증본의 진짜 매력은 자신이 직접 기증의 수혜자가 되는 데 있다. 앞의 한태석씨 표현을 빌리자면 ‘수증본(受贈本)’의 임자가 되는 것이다.

책 수집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주로 책방을 드나들며 신간이든 고서든 내 손으로 구하는 것이 그 하나요, 일반독자와는 좀 거리가 먼 얘기지만 책과 직접 관계있는 저자나 출판사 등이 보내주는 것으로, 말하자면 기증본이 그 또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술한 책이 밀집해 있는 속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 끝에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손에 넣는 전자의 경우에는 일종의 발견과 전유(專有)에서 오는 떼떽함과 흡족함을 맛볼 수 있지만, 흔히 책의 면지나 표제지에 ‘아무개 선생’ ‘아무개 님’ 등 하고는 좀 내려서 ‘저자’ ‘아무개 근정’이라 수서(手書)한 것을 받아드는 후자의 경우에는 그 책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나중이고, 우선 보내준 이의 후의가 고맙게 여겨지는 게 상례이다.

그러나 한태석씨가 기증본에서 느꼈던 저자의 후의도 이제는 순진한 옛말이 돼버린 성싶다. 책이 워낙 흔해진 세상이 되다 보니 저자의 후의보다는 자기과시와 홍보의 차원에서 책을 ‘뿌리는’ 일들이 점점 빈번해지고, 따라서 기증본을 받는 감흥도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일반독자들 입장에서야 ‘복에 겨운 푸념’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바야흐로 기증본 공해 시대의 도래를 말하는 이 들조차 있을 정도다.

“기증본을 받은 후,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고마움에 대해 그 어떤 부담감 같은 것이 가미되어 그 도가 심할 경우, 마치 이웃집에서 노느매기한 고사떡을 얻어먹고 무슨 수로든 갚아야겠다고 속으로 치부하는 아낙네들과 비슷한 심정”이 된다는 한태석씨의 술화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그래서 새삼스럽다.

출판저널

통권 제170호 / 1995년 5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종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허연
 한강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공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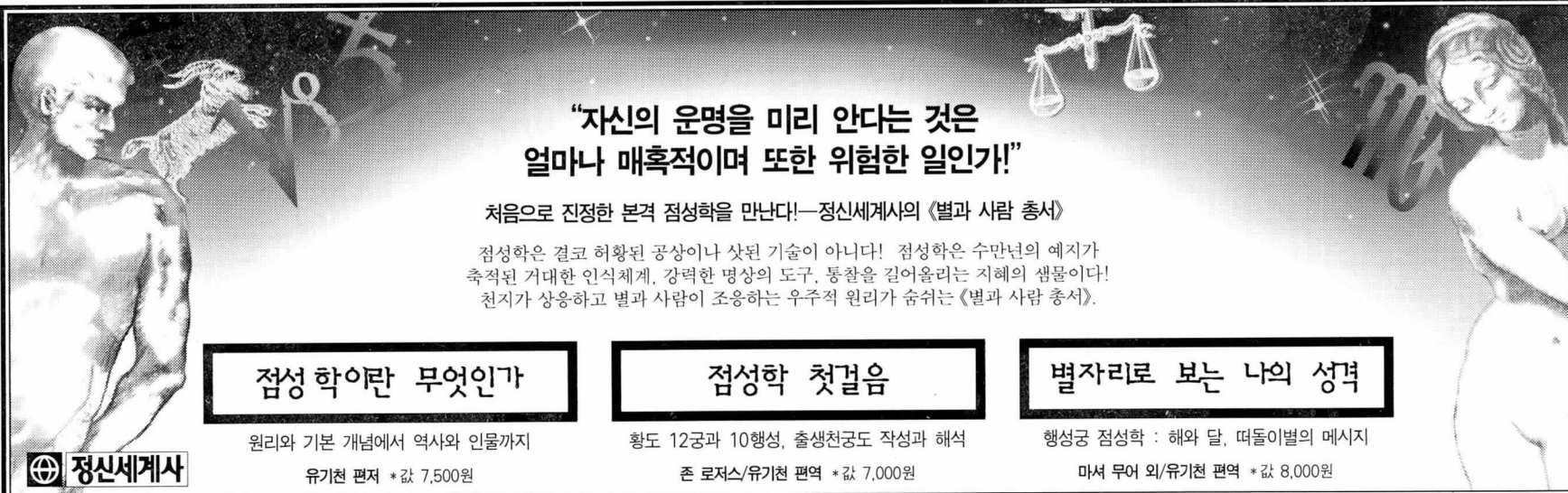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안다는 것은 얼마나 매혹적이며 또한 위험한 일인가!”

처음으로 진정한 본격 점성학을 만난다!—정신세계사의 《별과 사람 총서》

점성학은 결코 허황된 공상이나 사된 기술이 아니다! 점성학은 수만년의 예지가 축적된 거대한 인식체계, 강력한 명상의 도구, 통찰을 깊어올리는 지혜의 샘물이다! 천지가 상응하고 별과 사람이 조응하는 우주적 원리가 숨쉬는 《별과 사람 총서》.

점성 학이란 무엇인가

원리와 기본 개념에서 역사와 인물까지
유기천 편저 * 값 7,500원

점성학 첫걸음

황도 12궁과 10행성, 출생천궁도 작성과 해석
존 로저스/유기천 편역 * 값 7,000원

별자리로 보는 나의 성격

행성궁 점성학 : 해와 달, 떠돌이별의 메시지
마셔 무어 외/유기천 편역 * 값 8,000원

정신세계사